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임시연락처>

수 신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여성 후보 추천위원님

발 신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담당자 : 김기선미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담당 간사

()

1.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추천위원 요청을 승낙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
2.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17대 국회에서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각 분야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지지하고, 여성의 힘으로 위기의 부패 정치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1월 6일 발족한 바 있습니다.
3.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2004년 제 17대 총선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정치에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현재 '여성후보 추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차 추천은 12월 6일(토)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추천이 완료되면 후보자 선정을 위해 약 2차례정도 추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후, 후보자 리스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4. 추천위원님들께서는 여성후보 선정기준 마련과, 심사 및 선정 활동, 여성후보 리스트 기자회견 시 참석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님들께서는 약 2차례의 회의와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5. 후보추천 현황을 참조하여 위원님들께 가능한한 빨리 추천위원 회의날짜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소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안녕히계십시오. 다시 한번 추천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직인생략)

〈첨부자료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소개〉

1. 취지

(1)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해체하는 정치의 새판짜기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갈망하고 있으나 정치권 스스로가 정치개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 특히 그동안 정치에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을 교체하고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개편하여 개혁을 진전시켜야 한다.

(2) 비례직, 지역구 여성할당 확대에 따른 개혁적 여성들의 후보발굴 및 진출 운동 전개

정당법이 개정되어 비례직 중 50% 여성할당, 지역구 공천 30% 여성할당이 이루어지면,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정당의 밀실공천이나 공천거래가 사라지도록 대중적인 여성후보 추천 활동을 전개한다.

(3) 여성후보들의 당선지지운동을 통한 여성정치세력화 달성

국회 내에 ~~여성의제를 주류화하려면 깨끗하고~~ 실력을 갖춘 여성들이 17대 총선에 많이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각 분야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독려하고 지지하는 서포터즈 그룹이 필요하다.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는 각 정당에 참신하고 개혁적인 여성후보 리스트를 제시하여 공천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공천된 여성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 당선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2. 구성 : 여성정치세력화를 희망하는 개인들의 네트워크

1) 제안자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경린(광주YWCA사무총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윤후정(전 여성특위 위원장), 이송희(신라대 사학과 교수), 이춘호(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정순진(대전대 문예창작과 교수),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일숙(변호사)

2) 회원 : 현재 각 분야 여성 100여명

3. 사업내용

(1) 여성후보 추천 활동 및 추천위원회 구성

1) 여성후보 추천 활동 : 2차 추천 마감 2003년 12월 6일(토)까지

2) 후보추천 방법

가. 추천자격 : 개인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후보자격 : 전 • 현직 국회의원을 제외한 개인은 누구나 참여가능(정당인도 가능)

다. 추천양식 : 인터넷 www.womanpower2004.net 에 클릭하신 후 오른쪽 상단 '여성후보추천하기' 클릭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보내기

라. 추천 내용 www.womanpower2004.net

- 추천하는 사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등 기재
- 추천받는 사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현직, 주요경력, 추천사유 등

3) 추천위원 구성 : 12인 내외로 여성후보 추천위원 구성 : 여성원로, 시민사회 남성지도자, 법조계, 언론계, 학계, 장애, 노동, 농민, 지역 등에서 골고루 참여

- 추천위원의 역할

- 여성후보 선정기준 마련
- 심사 및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여러 경로로 진실성 검증
- 여성후보 리스트 발표 및 각 정당에 전달

(2)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 요구 및 지지, 당선운동

- 각 정당에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 요구(지역구 선출직, 비례직)
- 지역구에 진출하는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네트워크 구축 : 단체, 개인 모두 포함

(3) 홍보활동

- 여성정치인의 긍정적인 역할 부각
- 여론 매체 및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획 홍보

(4) 회원모집 및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모금

- 회원자격 :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여성(회비 : 수입자는 30,000원, 비수입자는 10,000원)
정당 등 정치관련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모금 : 사이버 모금, 우리 지역 여성후보를 위한 '1만원' 기부 캠페인, 모금이벤트 등

(5)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 www.womanpower2004.net

4. 발족선언문

"2004년 총선 여성 100인을 국회로 보내자!"

위기의 부패정치를 여성이 바꾼시다!

불법 대선자금의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수십년동안 구조적인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하는 이유는 남성중심의 정치 문화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주의, 권위주의, 물신주의, 연고주의는 남성이 중심이 된 우리 정치,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제 정치의 새판을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나설 때입니다. 나라꼴 망치는 남성에게만 정치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을 교체하고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개편하여 정치개혁을 진전시키고 맑은 정치의 새판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각종 연고와 이권관계에서 자유로운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전문성과 개혁성, 합리성을 갖춘 여성들이 정치에 대거 참여한다면 지역정치, 연고정치, 돈정치, 권위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6명, 너무 적습니다. 여성 100인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2003년 7월 8일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등을 평가한 여성권한척도(GEM)는 70개 국가 중 한국은 63위로 최하위권이요, 국회의원(272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해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여성계에서는 정치 분야에서의 누적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여성할당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할당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에서 비례대표 중 50% 여성할당에 합의하고 있으며, 여성·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비례직 중 50%, 지역구 선출직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약 91명의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성정치세력화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우리 여성들은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성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당의 밀실공천이나 공천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중적인 여성후보추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로 출마하는 여성이 늘어나야 가능하고,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은 힘을 모아 전체 국회의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캠페인을 전개

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후보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정당에 추천하고 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운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개하고자 합니다.

여성후보 추천운동으로 후보 선정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능력있는 여성들을 발굴하여 각 정당에 추천하는 운동을 통해 '능력있는 여성이 없다'며 여성후보 공천을 기피해 온 정당에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여성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각 분야에서 국가·사회발전과 양성평등을 위해 오랜 기간 일해 온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정치분야에서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후보추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여성, 각 분야에서 비례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개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국민 속에서 여성후보를 찾고, 시민적·여성주의적 검증을 거쳐 작성된 여성후보명단을 각 정당에 추천할 것입니다. 여성후보 추천운동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 선정과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며, 돈 있는 여성이 아니라 능력있는 여성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창립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판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진정으로 바라며, 각 정당에 정치자금법 개정, 여성할당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더 이상 늦추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3년 11월 6일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임시연락처>

수 신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여성 후보 추천위원회

발 신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담당자 : 김기선미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담당 간사

()

1.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추천위원 요청을 승낙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17대 국회에서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각 분야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지지하고, 여성의 힘으로 위기의 부패 정치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1월 6일 발족한 바 있습니다.
3.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2004년 제 17대 총선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정치에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현재 '여성후보 추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차 추천은 12월 6일(토)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추천이 완료되면 후보자 선정을 위해 약 2차례정도 추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후, 후보자 리스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4. 추천위원님들께서는 여성후보 선정기준 마련과, 심사 및 선정 활동, 여성후보 리스트 기자회견 시 참석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님들께서는 약 2차례의 회의와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5. 후보추천 현황을 참조하여 위원님들께 가능한한 빨리 추천위원 회의날짜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소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안녕히계십시오. 다시 한번 추천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직인생략)

〈첨부자료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소개〉

1. 취지

(1)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해체하는 정치의 새판짜기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갈망하고 있으나 정치권 스스로가 정치개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 특히 그동안 정치에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을 교체하고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개편하여 개혁을 진전시켜야 한다.

(2) 비례직, 지역구 여성할당 확대에 따른 개혁적 여성들의 후보발굴 및 진출 운동 전개

정당법이 개정되어 비례직 중 50% 여성할당, 지역구 공천 30% 여성할당이 이루어지면,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정당의 밀실공천이나 공천거래가 사라지도록 대중적인 여성후보 추천 활동을 전개한다.

(3) 여성후보들의 당선지지운동을 통한 여성정치세력화 달성

국회 내에 여성의제를 주류화하려면 깨끗하고 실력을 갖춘 여성들이 17대 총선에 많이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각 분야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독려하고 지지하는 서포터즈 그룹이 필요하다.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는 각 정당에 참신하고 개혁적인 여성후보 리스트를 제시하여 공천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공천된 여성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 당선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2. 구성 : 여성정치세력화를 희망하는 개인들의 네트워크

1) 제안자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경린(광주YWCA사무총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윤후정(전 여성특위 위원장), 이송희(신라대 사학과 교수), 이춘호(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정순진(대전대 문예창작과 교수),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일숙(변호사)

2) 회원 : 현재 각 분야 여성 100여명

3. 사업내용

(1) 여성후보 추천 활동 및 추천위원회 구성

1) 여성후보 추천 활동 : 2차 추천 마감 2003년 12월 6일(토)까지

2) 후보추천 방법

가. 추천자격 : 개인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후보자격 : 전 · 현직 국회의원을 제외한 개인은 누구나 참여가능(정당인도 가능)

다. 추천양식 : 인터넷 www.womanpower2004.net 에 클릭하신 후 오른쪽 상단 '여성후보추천하기' 클릭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보내기

라. 추천 내용 www.womanpower2004.net

- 추천하는 사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등 기재

- 추천받는 사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현직, 주요경력, 추천사유 등

3) 추천위원 구성 : 12인 내외로 여성후보 추천위원 구성 : 여성원로, 시민사회 남성지도자, 법조계, 언론계, 학계, 장애, 노동, 농민, 지역 등에서 골고루 참여

- 추천위원의 역할

· 여성후보 선정기준 마련

· 심사 및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여러 경로로 진실성 검증

· 여성후보 리스트 발표 및 각 정당에 전달

(2)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 요구 및 지지, 당선운동

- 각 정당에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 요구(지역구 선출직, 비례직)

- 지역구에 진출하는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네트워크 구축 : 단체, 개인 모두 포함

(3) 홍보활동

- 여성정치인의 긍정적인 역할 부각

- 여론 매체 및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획 홍보

(4) 회원모집 및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모금

- 회원자격 :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여성(회비 : 수입자는 30,000원, 비수입자는 10,000원)

정당 등 정치관련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모금 : 사이버 모금, 우리 지역 여성후보를 위한 '1만원' 기부 캠페인, 모금이벤트 등

4. 발족선언문

"2004년 총선 여성 100인을 국회로 보내자!"

위기의 부패정치를 여성이 바꾼다!

불법 대선자금의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수십년동안 구조적인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하는 이유는 남성중심의 정치 문화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주의, 권위주의, 물신주의, 연고주의는 남성이 중심이 된 우리 정치,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제 정치의 새판을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나설 때입니다. 나라꼴 망치는 남성에게만 정치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을 교체하고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개편하여 정치개혁을 진전시키고 맑은 정치의 새판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각종 연고와 이권관계에서 자유로운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전문성과 개혁성, 합리성을 갖춘 여성들이 정치에 대거 참여한다면 지역정치, 연고정치, 돈정치, 권위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6명, 너무 적습니다. 여성 100인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2003년 7월 8일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등을 평가한 여성권한척도(GEM)는 70개 국가 중 한국은 63위로 최하위권이고, 국회의원(272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해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여성계에서는 정치 분야에서의 누적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여성할당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할당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에서 비례대표 중 50% 여성할당에 합의하고 있으며, 여성·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비례직 중 50%, 지역구 선출직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약 91명의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성정치세력화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우리 여성들은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성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당의 밀실공천이나 공천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중적인 여성후보 추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로 출마하는 여성이 늘어나야 가능하고,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은 힘을 모아 전체 국회의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캠페인을 전개

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후보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정당에 추천하고 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운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개하고자 합니다.

여성후보 추천운동으로 후보 선정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능력있는 여성들을 발굴하여 각 정당에 추천하는 운동을 통해 '능력있는 여성이 없다'며 여성후보 공천을 기피해 온 정당에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여성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각 분야에서 국가·사회발전과 양성평등을 위해 오랜 기간 일해 온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정치분야에서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후보추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여성, 각 분야에서 비례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개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국민 속에서 여성후보를 찾고, 시민적·여성주의적 검증은 거쳐 작성된 여성후보명단을 각 정당에 추천할 것입니다. 여성후보 추천운동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 선정과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며, 돈 있는 여성이 아니라 능력있는 여성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창립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판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진정으로 바라며, 각 정당에 정치자율법 개정, 여성할당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더 이상 늦추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3년 11월 6일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준비위원회